

용산어린이정원 방문객들이 석면에 노출된 사실은 없습니다.

< 보도내용 (연합뉴스, 10.24) >

◆ 용산어린이정원, 석면건물 품고 1년간 방문객 20만명 맞았다.

- 용산어린이정원 내 존치 건물 24개동 중 9개동에서 고농도 석면
- 국토부, '성인과 어린이 모두 온종일 정원을 이용해도 안전하다'는 안내 무색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와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이한준)는 `23년 5월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개방하였습니다.

□ 어린이정원 개방 전인 `22년 상반기, 정원 내 건물에 대해 석면현황을 조사하였고, 방문객 이용 예정 건물 내 석면은 `22년 하반기까지 모두 제거하였습니다.

- 그 외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지 않은 공간에서 발견된 석면은 시건장치 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왔으며, `24.7월까지 추가 해체 작업을 통해 현재 어린이정원 내에는 석면 건축물이 없습니다.

□ 석면조사 시 위해성 평가도 병행하여 낮은 등급임을 확인하였으며,

- 석면 제거 공사 시 비산농도 측정 용역을 통해 제거 작업의 전·중·후 비산 측정을 실시한 결과 비산농도 측정값이 모두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하여 안전함을 추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.

* 측정값 : 0.001~0.003개/cm³, 기준치 : 0.01개/cm³

□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용산 어린이정원을 찾을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 총괄 >	국토교통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공원운영과	책임자	과 장	정승수 (02-2131-2030)
		담당자	사무관	천재영 (02-2131-2026)
		담당자	사무관	이민기 (02-2131-2036)
담당 부서	한국토지주택공사 용산공원사업본부	책임자	팀 장	임우연 (02-6716-2830)
		담당자	차 장	송준필 (02-6716-2829)